

# “평화·인권 사랑... 고향 닮은 광주서 100% 삶”

## 예향서 살아보니



### 필리핀 유학생 반타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은 제 고향인 필리핀 마닐라와 많이 닮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광주에 사는 젊은이들은 5·18 민주항쟁을 단지 ‘과거’로 치부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유’를 향한 광주 시민의 정신은 그 하나만으로도 광주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리고베르토 반타(Rigoberto banta Jr·22)씨는 자신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이자 광주 홍보대사라고 소개한다. 외국인 최초 전남대학교 영자신문사(Chonnam Tribune) 편집국장, 유네스코 문화교실(UNESCO CCAP) 프로그램 문화교류 봉사자, 2015 하계 U대회 대학생 홍보대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웃음이 묻어난다.

“광주에서 100%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릴적부터 요리사를 꿈꿔온 광범한 학생이었다. 2009년 한국정부초청장학생과 필리핀 국립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동시 합격했을 때, 그는 고심 끝에 더 넓은 세계로의 도전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었다고 반타씨는 고백했다.

“서울 사람들은 ‘개인’으로 살아요. 자신이 정해놓은 틀 안에 갇혀 있을까요. 저도 그에 맞춰 챗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아야만 했죠. 2010



한달에 한번 발행되는 전남대학교 영자신문(Chonnam Tribune) 제작 회의 모습. 편집국장 반타(중앙)씨가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Chonnam Tribune 제공)

## 전남대 영자신문 편집국장·U대회 홍보대사 등 활동 다양 “광주 5·18-필리핀 평화민주투쟁, 시민정신에 동질감 ‘더 넓은 세계로의 도전’ 따뜻한 도시 광주서 꿈 더 커져”

년 광주에 오고 ‘숨을 쉴 수 있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먼저 다가와주고,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 덕분이었죠. 특별한 것은, 그 사람들이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게 광주만이 가진 따뜻함이고,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반타씨의 광주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 특히 5·18 민주항쟁에는 더욱 큰 관심이 있다. 고향인 필리핀에서 마르코스 독재를 종식한 평화민주투쟁(people power revolution)처럼,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광주를 알게 된 후 소름이 돋았던때가 5·18을 처음 접하고, 묘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필

리핀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평화민주투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배우면서 커 나가죠. 하지만, 광주 학생들은 의외로 5·18에 대해 잘 몰라요. 자유를 얻기 위한 희생이 그저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 멈춰버리는 건 아닐지 우려될 정도예요.”

그는 5·18을 비롯한 광주의 모든 것, 그러니까 길이나 사람 한 명에서도 광주의 ‘문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외국인, 심지어 광주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에게도 박물관보다 충장로나 금남로, 5·18묘지를 찾아가 보라고 권한다. 평범한 것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일이 광주를 새롭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레

3년 전 이종덕(75) 총무아트홀 대표를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10월 개관부터 일기 6년동안 성남아트센터를 이끌었던 이 대표는 잠시 휴식기를 가질 틈도 없이 중구청장의 끈질긴 러브콜에 총무아트홀로 자리를 옮겼다. 총무아트홀은 서울시 중구 문화재단이 운영하느 북촌문화공간이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책상 뒤에 내걸린 커다란 흑백 사진이 눈에 띄었다. 여기 저기 상처

의 산물이다. 지난 1963년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문화와 인연을 맺은 그는 예술의 전당 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거치는 동안 ‘예술행정의 달인’이란 명성을 얻었다.

자율성과 창조성을 문화재단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그의 리더십으로 성남아트센터는 서울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 수도권외 ‘빅3 공연장’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사랑방 문화클럽’은 성남문화재단의 ‘베스트 오브 베

## 새 문화재단 사무처장에 바란다

투성이인 데다 기형적인 모양이 아름다운 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씨였다. 그가 강씨의 발 사진을 사무실에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예술가의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지난 2009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국제무용제의 개막공연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그는 수많은 연습과 공연으로 ‘nutan’이 된 강씨의 발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자신의 불꽃없는 두 발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며 찬사를 보낸 이 대표에게 강씨는 사진을 선물했다. 이 대표

는 굳은 살과 굵어진 뼈마디가 안 쓰러온 강씨의 발을 보면서 예술가를 위해 문화재단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그의 남다른 면모는 50여년 동안 예술현장에서 쌓은 역량

스트’이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공동체’를 내건 사랑방클럽은 지역의 1천 여개 아마추어 문화클럽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중매’ 역할을 한다. 지난해 문광부로부터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문화활동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다.

최근 공식중인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장에 김성(전 의재문화재단 감사)씨가 선임됐다. 재단의 사무처장은 지역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행복을 위한 정책을 이끌 막중한 자리다.

새 사무처장은 재단 위상뿐 아니라 광주의 문화발전을 위해 그동안 쌓은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줄길 바란다. 성남의 ‘사랑방 문화클럽’을 뛰어넘는 광주문화재단의 ‘히트작’을 기대한다.

(편집국장직점 문화선임기자)

## ‘동심초’ ‘그대 있음에’... 한국 가곡의 향기

### 1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가곡을 들어 볼 수 있는 성악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유·스퀘어문화재단 금호아트홀이 2013 스페셜리스트 5번째 시리즈로 ‘한국 가곡의 향기’를 개최한다.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유·스퀘어문화재단 금호아트홀은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실내악 그룹 노보스 콰르텟 등을 초청, 4차례 스페셜리스트 연주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연에는 지난 1993년 창단 후 한국 가곡 부흥을 위해 다양한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는 ‘예술음악무대’(이사장 박수길 한양대 명예교

수) 단원 진귀옥(주예예술대 교수), 최승태(연세대 명예교수), 배기남(서울종합예술대 교수), 김병진(성신여대 교수)씨 등이 출연한다.

또 광주에서 활동하는 대표 성악가인 임해철(호신대 교수), 박계(조선대 교수), 김진희·신은정씨가 함께 무대에 선다.

피아노 반주는 박선정·나원주씨가 맡는다.

레퍼토리는 한국 가곡을 대표하는 ‘그대 있음에’ ‘동심초’ ‘남이 오시는지’ ‘산유화’ ‘나그네’ ‘사공의 노래’ ‘산촌’ ‘얼굴’ 등 24곡이다.

한편 오는 5월24일에는 스페셜리스트 6번째 시리즈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지와 피아니스



박수길 임해철 최승태

트 김태형 듀오 무대가 펼쳐지며 5월31일에는 유·스퀘어문화관 개관 5주년 기념음악회로 금호아시아나홀로이스트가 공연을 갖는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문의 062-360-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여성친화마을 서포터스 교육생 모집 광주여성재단 5월28일까지 강의 진행

광주여성재단(이사장 이윤자)은 여성친화마을 서포터스 역량강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성평등 관점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이 반영된 기획력과 창의력을 가진 여성인재 양성 및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오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오후 2시~5시) 여성재단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여성친화마을과 공동체 사업, 선배와 함께하는 여성친화마을 워크숍 등 다양한 강의와 선진 여성 친화마을 답사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교육비는 3만원(현장학습비, 교재비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준다. 문의 062-670-0540. /김미은기자 mekim@

## ‘연탄길’ 작가 이철환씨 초청 강좌

### 20일 광주서구문화센터

광주서구문화센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연탄길’ 작가 이철환씨 초청 강좌를 진행한다. 20일 오후 2시 문화센터 4층 대강당.

2013 서구사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 이씨는 ‘무엇을 꿈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 2000년 첫 출간된 ‘연탄길’은 40만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 셀러로



작가가 일일이 작품을 팔아 채집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씨는 책 수익금으로 ‘연탄길 나눔터 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54-43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모집

100세 시대를 위한 행복한 교육!  
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창의적인 인성을 키우는 교육!!

**모집기간** ~ 2013. 4. 30(화)  
**개강일** 2013. 5. 2(목) ~  
※스포츠마사지1급, 진로코칭 과정은 별도 개강.

**접수 및 등록**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원서부착용)

**문의처**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1023

과 정 명	강사명	교육시간	주	교육연월	수강료(원)	비 고
음악심리치료 전문기과정(초급)	이미경	목 19:00~22:00	15	20	300,000	-
CEO인간경영 리더십	김기현	목 18:30~22:00	6	30	300,000	인간경영 지도사 2급
매인대칭 평생행복강사	김기현	목 15:00~18:00	6	30	300,000	행복강사2급
다문화상담사	김성구	목 19:00~22:00	10	30	200,000	다문화상담사/다문화교육사 2급 동시 취득
자기주도학습	정승안	금 14:00~16:00	15	30	150,000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김현진 외2명	화 19:00~22:00	15	30	250,000	정서코칭/학교폭력예방상담사
뉴스포츠대권도 (글로벌퍼스펙티브)	신은호	화·수·목 10:00~11:00, 14:00~15:00	15	20	200,000	태권도 단증취득
진로코칭	박성균	월-금 9:00~18:00	1	30	300,000	에니어그램기본/심화 자격취득
스포츠마사지1급	정상호	월·목 19:00~22:00	4	30	150,000	스포츠마사지1급

※ 자격증비, 재료비, 교재비는 각 과정마다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각 과정을 이수하시면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수료증을 드립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 소로 36  
www.kwangshin.ac.kr

## SINCE 1988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